

불자기업인들 이렇게 실행한다

‘부처님 경제윤리’ 경영 일선서 실천

각종 불사에 큰 화주로 동참, 독경·기도로 신심다져

부처님께서는 정당한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얻어진 수익을 혼자 독점해서는 안되며 의식주의 생필비와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 저축과 고용인의 급여, 남을 위해 베푸는 것들의 대부분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분법(四分法)은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도 바람직한 기업경영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가르침은 불자기업인들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불교를 믿는 기업인들은 실행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새해를 맞아 주요 그룹 회장과 기업체 사장들의 불교실행활동을 들여 보았다. 금호그룹의 박성룡회장은 바쁜 경영 일선에서도 틈틈이 경전을 읽으며 정신적인 부를 쌓고 있다. 박회장은 자신의 삶 속에서 5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등산길에 만나는 사찰엔 반드시 들어가 법당문을 여는 신심 돈독한 불자다.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의 경우도 누구보다 두터운 신심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탄허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했다. 오대산 월정사 중창불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대화주로 주목 받았으며 월정사에 공덕비까지 세워져 있다.

또한 2년전에 완공한 남한산성 팔왕사 중창불사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여타의 사찰이 일구는 불사마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원그룹 엄상호회장의 신심은 교계에 잘 알려져 있다. 전국신도회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엄회장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포교담당 부지를 내놓아 상계동 분당동지의 아파트촌 포교지구측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룹내의 불교실행단체인 건원선정회는 기업 실행단체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엄회장의 신심은 불교담당 비서가 따로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그는 불교와 관련된 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으며 스님 포교사들과의 유대도 매우 폭넓게 지니고 있다.

한국 코데코의 최계열 회장이 실천적인 불교신자다. 그는 집안에 불상을 모셔 놓고 조식 예불을 올리다가 하면 각종 불교서적도 폭넓게 섭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의 이진희 회장은 부인 홍나의 여사와 함께 부처님이 모셔진 산사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 북한산 승가사의 대화주로도 알려져 있는 이회장은 불교 관련 사업도 구상 중이다.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의 경우 작고한 모친 김미희여사의 불심을 잇고 있다. 김회장은 역시 부부가 함께 불교를 믿고 있



◇박성룡씨



◇조중훈씨



◇엄상호씨



◇이건희씨



◇최계열씨



◇유중열씨



◇김석원씨



◇장상태씨



◇한갑진씨



◇정형식씨

다. 효성중공업의 유종열 사장은 일요법회를 반드시 참석하며 높은 신심을 보여 주기로 유명하다. 안양 한바를 선원을 다니는 유회장은 한달에 두번 가량은 일체의 주말 스케줄을 비워두고 실행을 한다. 기업인에게는 중요한 골프 약속도 이때만큼은 하지 않는다는게 주변의 귀띔이다.

동국그룹의 장상태 회장과 불교와의 인연은 이미 교계의 상식처럼 돼 있다. 그는 대원정사의 창건주이며 (재단법인) 대원의 창설자인 대한 정경호 거사의 세계 아들이기 때문이다. 불교방송 설립의 중추역을 했던 장상문거사의 동생인 장상태 회장은 대를 잇는 불심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한진중업 한갑진 회장은 평생을 걸어온 영희의 길을 불교에 회향할 것을 발원할 만큼 돈독한 불심을 보여주고 있다. 한회장은 지난해 「부처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한 이후 또 하나의 불교영화를 기획중이다. 한회장은 올해 번역서(아한경) 4권도 펴낼 계획이다. 집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과 예불을 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한회장은 계속 경전강행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양약품의 정형식회장은 불양사를 자주 찾는 불자다. 모친의 영향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는 정회장은 온 집안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아들 정재형 이사등 집안식구와 사할을 찾는 것을 중요한 행사로 여기고 있다. 올해 73세로 나이가 들수록 부처님결을 찾게 된다는 정회장은 자신의 불심을 매년 부처님오신날 보름전부터 수십개 사찰에 등을 달면서 키워가고 있다.

한보그룹의 정태수 총회장의 아들인 정보근 부회장은 최근 조계사 근처의 불교서점에서 대량의 불서를 구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근무중인 마산 현장에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광산업의 명예회장이자 군불교진흥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상길 회장의 불심도 큰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박회장은 강남 구룡사를 자주 찾아 간다. 특히 군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4년전부

터 많은 군불교진흥회에 상당한 액수의 발전기금을 매년 내놓고 있다. 대전지역의 유수업체인 계룡건설 이인구회장도 지역에서 알아주는 불교신자다. 은집안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경원 건설의 이현구사장과는 현재지간이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대전시 대덕구 관내의 거의 모든 사찰에 등을 달고 지역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이인구 회장은 선대부터 지켜온 불심을 가족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임연태기자>

터 많은 군불교진흥회에 상당한 액수의 발전기금을 매년 내놓고 있다. 대전지역의 유수업체인 계룡건설 이인구회장도 지역에서 알아주는 불교신자다. 은집안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경원 건설의 이현구사장과는 현재지간이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대전시 대덕구 관내의 거의 모든 사찰에 등을 달고 지역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이인구 회장은 선대부터 지켜온 불심을 가족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임연태기자>

터 많은 군불교진흥회에 상당한 액수의 발전기금을 매년 내놓고 있다. 대전지역의 유수업체인 계룡건설 이인구회장도 지역에서 알아주는 불교신자다. 은집안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경원 건설의 이현구사장과는 현재지간이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대전시 대덕구 관내의 거의 모든 사찰에 등을 달고 지역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이인구 회장은 선대부터 지켜온 불심을 가족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임연태기자>

터 많은 군불교진흥회에 상당한 액수의 발전기금을 매년 내놓고 있다. 대전지역의 유수업체인 계룡건설 이인구회장도 지역에서 알아주는 불교신자다. 은집안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경원 건설의 이현구사장과는 현재지간이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대전시 대덕구 관내의 거의 모든 사찰에 등을 달고 지역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이인구 회장은 선대부터 지켜온 불심을 가족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임연태기자>

본지조사 재계인사 1만3천명의 종교

우리나라 기업인 중 61%가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경련이 94년 8월에 간행한 「한국경제연감 부록 재계 인사록」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상당 기업 경영자와 전경련 소속 경제인 1만3천1백25명의 인사록에 나타난 기업인들의 종교현황은 불교 12%(1천5백22명) 기독교 19.2%(2천5백19명) 천주교 7.8%(1천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2%에 해당하는 7천9백65명이 무종교라고 적고 있

한 관심도가 더 높다는 사실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이다. 특히 무종교 기업인 가운데 개인적 실행은 없어도 집안은 불교적 성향이라 답한 사람이 35%에 가깝다는 사실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 대책의 시급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

기업 경영인의 종교에 따라 사내의 종교 활동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재계의 여지가 없다. 업체별 불교 실행운동의 확산은 경영자의 포교를 통해 빠르게 전

불교 12% 무종교 60%... "불교에 관심" 35%

실행회조직등 포교대책 세워야

어 절반을 훨씬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원불교와 유교가 0.3% 기타종교가 0.08%등의 극소수로 나타났다.

이 인사록을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기업인 가운데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분석 이후 본지가 무종교라 적은 기업인 1백여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30~35% 가량은 '직접적인 종교활동은 하지 않고 있으나 집안은 불교적 성향'이라고 답했다. 또 25~30% 가량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기풍이 지켜지고 있어 특별히 종교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종교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쪽의 대답을 해 왔으며 반드시 종교를 선택 한다면 어느 종교를 믿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교 기독교라는 응답이 천주교 기타종교에 비해 많았으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불교에 대한 관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인에 대한 포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신의 종교를 밝힌 기업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불교인보다 1천여명 가량 많다는 분석과 무종교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에 대

개될 수 있다는 것이 산업체포교 현장의 목소리다.

지역별 불교실행인회의 활성화도 중요한 포교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는 부산지역이 유일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으나 서울, 광주, 대구, 인천, 대전 등 주요도시에 불교실행인회를 조직 기업인들 간의 실행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태>

재계인사 종교현황표

종교	숫자	비율
불교	1522명	12%
기독교	2519 "	19.2%
천주교	1025 "	7.8%
무종교	7965 "	60.2%
원불교	42 "	0.3%
유교	43 "	0.3%
기타	10 "	0.08%
계	13,125 "	100%

부산불교실행인회



◇김정태회장

오는 2월로 창립4주년을 맞는 부산 불교실행인회(회장 김정태 태화소림사장)는 회원 1백10명과 특별회원 5명으로 구성된 기업인 불자들의 단체다.

전국에서 유일한 불교실행인회로서 경영인의 '신심 유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부산불교실행인회는 회원개인의 실행다지기

와 친목도모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각종 후원사업등을 펼치고 있다. 창립 이후 매월 갖는 정기법회는 일정한 사찰이나 회관을 벗어나 명찰순례 고승법어등으로 진행된다. 부산 인근의 고찰은 이

미 다 순례한 상태이며 오대산, 설악산등지도 2박3일의 일정으로

신심·친목 쌓으며 지역불교 발전 주도

다녀 실행인들의 신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사찰 순례법회는 반드시 대덕스님의 법문과 함께 하고 있다. 회원들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아 매월 법회마다 50~70여명이 동참한다. 회원들은 바쁜 경영 일선에서 법회참가 외에도 개

별적으로 교양대학 성지순례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신심을 고양시킨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부산불교실행인회의 활동은 회원들이 불자로서 경영인으로서 이사회에 모범이 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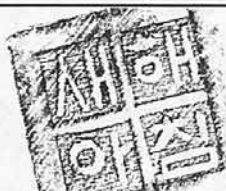
도한다. 회원 상호간의 경영정보 교환과 상호협조체제의 형성등은 실행인회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신적인 건강과 경영의 바른길을 함께 추구하는 실행인회는 부산지역의 경제와 불교발전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역불교 활동의 활성화에도

는 점 때문에 실행인회의 재정 자립은 창립 초기부터 이뤄졌다. 정기회비 외에도 회원들의 특별 회비등이 높은 참여율 속에 어려움 없이 모아져 각종 사업에 유익하게 쓰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역에 실행인회가 결성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다면 불자 실행인들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실행인회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들의 정기회비 참여율은 70%선을 웃돌고 있다. 이는 이지역 실행인들의 신심을 드러내는 좋은 예이기도 하지만 타지역 실행인회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불자실행인들의 신심을 한데 묶는 기구의 결성을 통한 지역불교 발전과 개인의 실행 증진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995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조계종 승인장사
성동불교 포교원
주 지 법 경 언
육바라밀회장 성 장엄각
능인가족 일동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
☎ 462-1335 · 1339 FAX 462-1339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용인부교양료원 ○노인문제연구소
○서울 광명의원 ○정주 광명의원
○군포 광명의원 ○내전 광명의원
이사장 김각현 외
임직원 및 후원회원 일동
☎ (02) 203-3677, (0335) 34-3677

定法大學 佛敎 指導者協會
약사포교원
주 지 張覺性
신도일동
강동구 김1동 366-4 내남빌딩 7
☎ 474-0554 FAX 472-5292

대한불교 조계종
보경사
주 지 진 현
재 부 종 각
대 중 일 동
경북 영일군 송라면 중산리 622
☎ (0562)62-1117 FAX (0562)62-0149

화계사
조 실 송산 행원
신도일동
서울시 도봉구 수유1동 487
☎ 902-2663

성곡사
주 지 덕 불
신도일동
도봉구 방학 2동 산 400-16
☎ 902-4455

서부은평 사원연합회
회 장 서성운(삼천사)
부회장 한자용(수곡사)
부회장 김혜진(시연사)
부회장 이법성(관음사)
사무총장 서혜진(신흥사)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은평사서함 77호
☎ 359-7766, 353-3004

수안사
대 중 일 동
신도일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 587-4677, 3213

정계사
신도일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
☎ (0343)26-2348, 26-2670

대한불교 조계종
계룡산자광사
주 지 이원행
대 중 일 동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49
☎ (042)822-9219 FAX 822-9220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78호 도공기능 82호
문화·단학·공상조형
한국불교미술원
원 장 정규진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 730-8072 (야) 648-0930

약사사
주 지 장영하
신도회장 황대덕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1
☎ 662-2551, 664-0311

법성사
주 지 이석천
대 중 일 동
신도일동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산 23-4
☎ 651-4382

정각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신도일동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277-12호
☎ 742-1231